

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

- 노사발전재단, 택배·물류센터 노동자 대상 안전한 여름나기 전격 전개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여름철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고온·장시간 근무 환경에서 일하는 택배·물류센터 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생수 지원과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해 택배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와 체결한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으며, 택배·물류센터 노동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안전보호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오는 7월 29일에는 폭염 집중기간 동안 택배·물류 현장 노동자의 갈증 해소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택배노동자 온열질환 예방 생수 나눔식” 행사를 롯데글로벌로지스 제주 물류센터에서 개최했다. 행사를 위해 노사발전재단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제주삼다수)가 공동 후원하여 전국 주요 택배 물류센터 종사자들에게 생수 1만 병을 기부했다. 특히, 한국노총 택배산업노동조합과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롯데택배전국대리점협의회, 한진택배대리점협회, 로젠택배전국지점장협의회, 쿠팡파트너스연합회 등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가 택배산업 노사를 대표해 참여하였고,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제주노동권익센터 등이 지역 노동현장의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함께 참여했다.

아울러, 8월에는 물류센터 및 택배차량 내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화기를 비롯한 안전 물품을 추가 지원하고 관련 안전 캠페인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택배산업 노동현장의 최전선에서 땀 흘리는 택배·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권익 증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일하는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연대의 의미가 크다”라며, “민관협력에 앞장서 현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선제적 안전보건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노사발전재단 노동권익증진팀	책임자	팀 장	홍수민 (02-6021-1065)
		담당자	책임컨설턴트	이주연 (02-6021-1231)

